

BRIEF

Vol. 07 | 2022. 03.31.



작성: 이정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3층 T.055-713-7074 F.055-713-7093 www.gnwff.or.kr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와 활용방안 1)

01.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 정의 및 구성	02.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 출처 및 항목	03.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별 상세내용	04.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 의의 및 활용방안
-------------------------------	-------------------------------	-----------------------------	---------------------------------

- 경남은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문화가 다른 지역보다 강해서 가족문화 개선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에서부터 가족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문화가 훈련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평등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가족문화를 지속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를 제시하여 가족문화의 변화 양상을 시계열적으로 추적 관찰함으로써 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01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 정의 및 구성

- ‘평등 가족문화란 가족 구성원 간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민주적인 가족문화, 남녀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평등한 가족문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하는 가족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핵심가치는 ‘다양성, 소통, 돌봄, 공존’ 네 가지임
- 2021년 발간한 「경남 평등 가족문화 조성방안: 가족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서는 경남가족실태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남 가족정책의 목표를 ‘소통하고 존중하는 경남 가족’으로 설정함.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함께 돌보는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의 4개 영역 16개 과제를 제안함
- 이에 따라 각 영역별 가족문화 변화양상을 추적 관찰하기 위한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를 4개 영역 21개 지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각 영역별 지표 구성은 아래 <그림1>과 같음

그림 1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 구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관대화 정도 ■ 당사자 중심 결혼문화 ■ 이혼 관대화 정도 ■ 동거 관대화 정도 ■ 국제결혼 관대화 정도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일 공평 분담 인식 ■ 가사노동 소요시간 ■ 가사일 공평 분담 실태 ■ 가족관계 만족도
함께 돌보는 가족(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만족도 ■ 근로시간 만족도 ■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만족도 ■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만족도 ■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 ■ 노후 준비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 기부 참여율

1) 본 내용은 2021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서 발간한 「경남 평등 가족문화 조성방안: 가족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연구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요약함

02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 출처 및 항목

-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는 「사회조사」, 「가족실태조사」 등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구성되어 지속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또한 「경상남도사회조사」 가족 관련 항목도 포함하여 경남 지역의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4개 영역, 21개 지표)의 통계 출처 및 항목은 <표1>과 같음

표 1 통계 출처 및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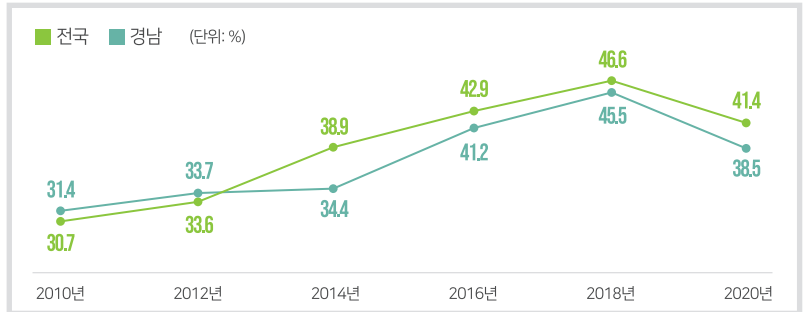
영역	지표	통계 항목	출처(조사주기)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 (6개)	결혼 관대화 정도	결혼에 대한 견해 중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응답	사회조사(2년)
	이혼 관대화 정도	이혼에 대한 견해 중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응답	사회조사(2년)
	국제결혼 관대화 정도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중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에 대한 동의 정도	사회조사(2년)
	당사자 중심 결혼문화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중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반대 정도	사회조사(2년)
	동거 관대화 정도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중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사회조사(2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1인가구에 대한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	가족실태조사(3년)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4개)	가사일 공평 분담 인식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 응답	사회조사(2년)
	가사일 공평 분담 실태	가사 분담 실태에 대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 하고 있다고 응답	사회조사(2년)
	가사노동 소요시간	요일 평균/평일/토요일/일요일 가사노동시간	생활시간조사(5년)
	가족관계 만족도	전반적인 가족관계 / 배우자 관계 / 자녀 관계에 대한 “만족” 응답	사회조사(2년)
함께 돌보는 가족 (7개)	보육시설 만족도	미취학 자녀 보육시설 만족도 “만족” 응답	경상남도사회조사(신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만족도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중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만족도 “동의” 응답	경상남도사회조사(신규)
	노후 준비도	노후 준비방법에 대해 “준비되어 있음” 응답	사회조사(2년)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만족도	근로여건 중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만족 응답	사회조사(2년)
	근로시간 만족도	근로여건 중 “근로시간” 만족 응답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	육아휴직 참여자 중 남성 비율	고용보험DB(1년)
	가족친화인증기업 수	해당연도 신규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수	여성가족부(1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 (4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인 사회안전 “만족” 응답	사회조사(2년)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동의” 응답	사회조사(2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고 응답	경상남도사회조사(2년)
	기부 참여율	기부 참여 여부에 대해 “기부함”에 응답	사회조사(2년)

03 경남 평등 가족문화 지표별 상세내용

1.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 분야

■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로, 경남은 2010년 31.4%에서 2020년 38.5%로 상승하였으나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41.4%보다는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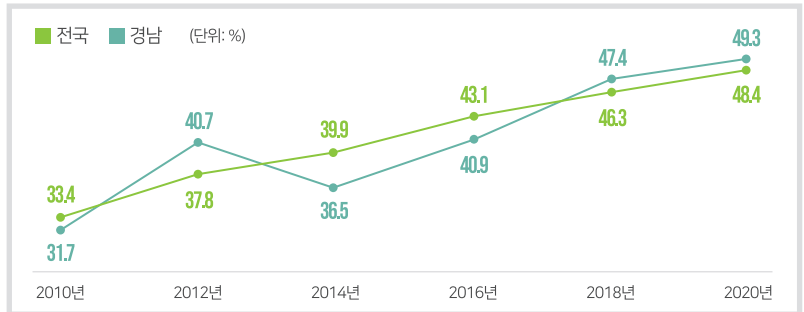
그림 2 결혼 관대화 정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 이혼에 대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로, 경남은 2010년 31.7%에서 2020년 49.3%로 상승하였고,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48.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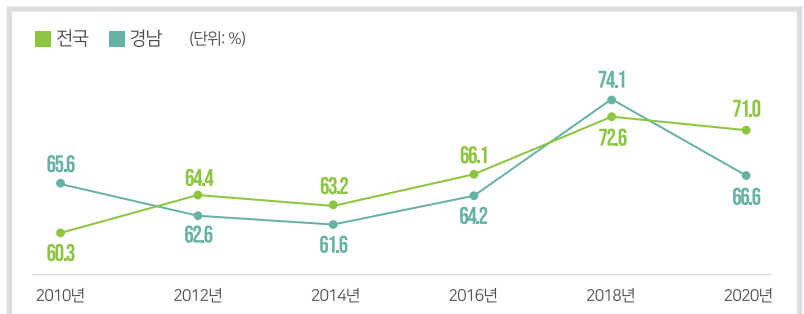
그림 3 이혼 관대화 정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에 대해 동의한 비율로, 경남은 2010년 65.6%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0년 66.6%로 다소 상승하였으며,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71.0%보다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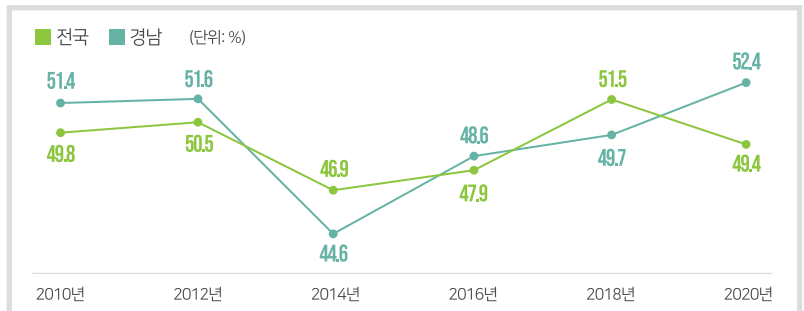
그림 4 국제 결혼 관대화 정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로, 경남은 2010년 51.4%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0년 52.4%로 상승하였으며,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49.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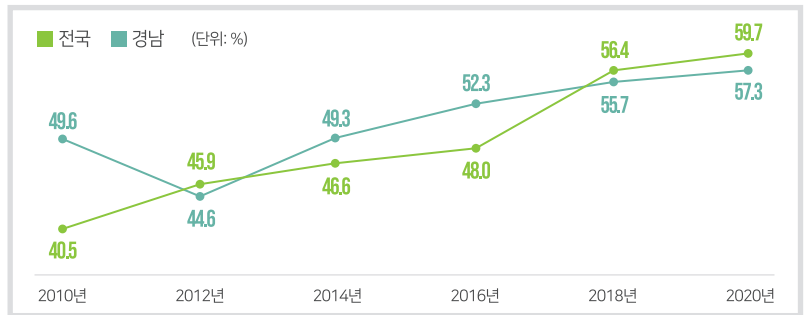
그림 5 당사자 중심 결혼문화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동의한 비율로, 경남은 2010년 49.6%에서 2020년 57.3%로 상승하였고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59.7%보다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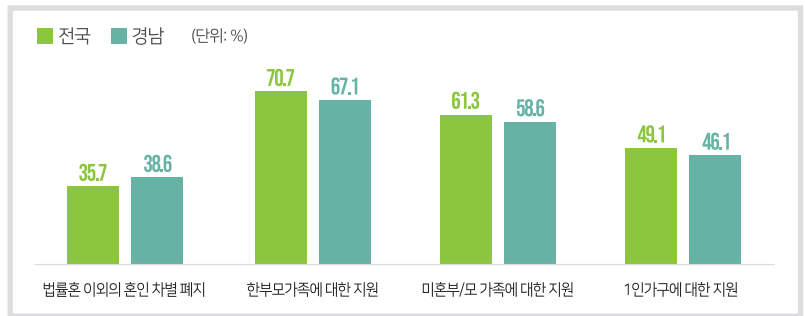
그림 6 동거 관대화 정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각 정책에 대한 동의 비율로, 각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가 2020년 기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그림 7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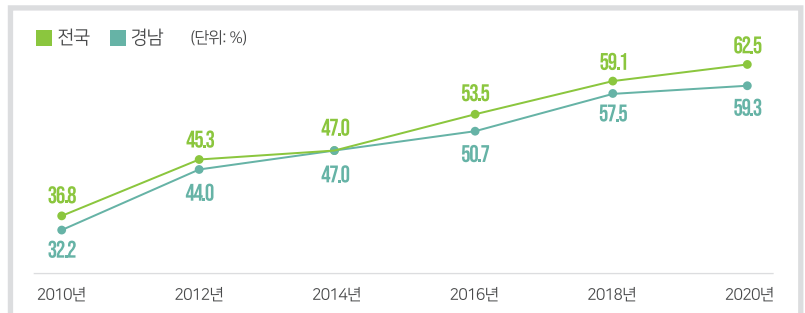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KOSIS.

2.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분야

가사 분담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로, 경남은 2010년 32.2%에서 2020년 59.3%로 큰 폭 상승하였으나,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62.5%보다 낮게 나타남

그림 8 가사일 공평 분담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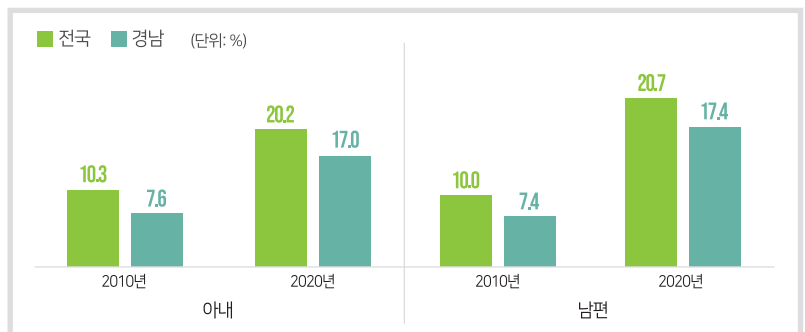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실제로 가사일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지에 대해, 2020년 경남 아내는 17.0%, 경남 남편은 17.4%만 그렇다고 응답함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2010년, 2020년 경남의 아내와 남편 모두 응답이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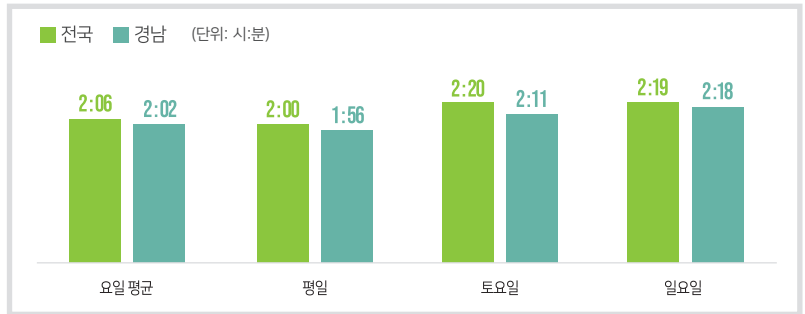
그림 9 가사일 공평 분담실태(아내·남편)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 하루 중 '가정관리, 가족·가구원 돌보기'에 응답한 시간을 요일 평균 시간과 평일·토요일·일요일로 나눠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요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경남 2시간 2분, 전국 2시간 6분으로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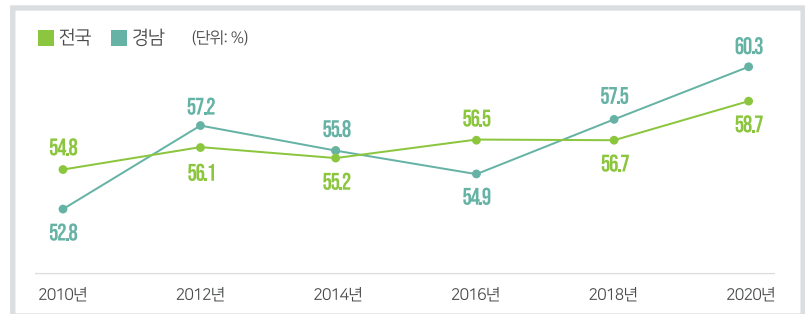
그림10 가사노동 소요시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19년), KOSIS.

■ 경남의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2010년 52.8%에서 2020년 60.3%로 상승하였고 2020년 전국 평균 58.7% 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11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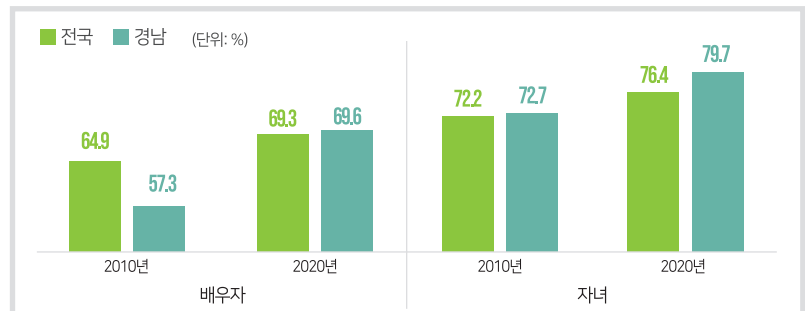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 경남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2010년 57.3%에서 2020년 69.8%로 상승하였고 2020년 전국 평균 69.3% 보다 높게 나타남

■ 경남의 자녀 관계 만족도는 2010년 72.7%에서 2020년 79.7%로 상승하였고 2020년 전국 평균 76.4% 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12 배우자·자녀 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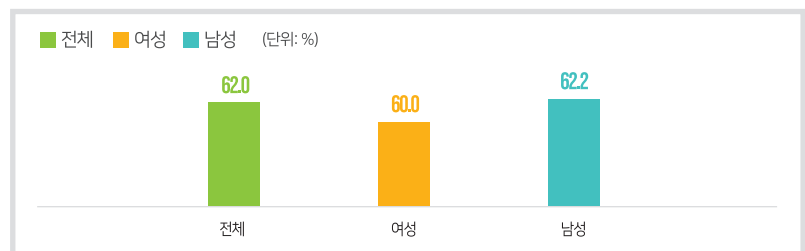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3. '함께 돌보는 가족' 분야

■ 미취학 자녀 보육시설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로 2020년 기준 전체 62.0%이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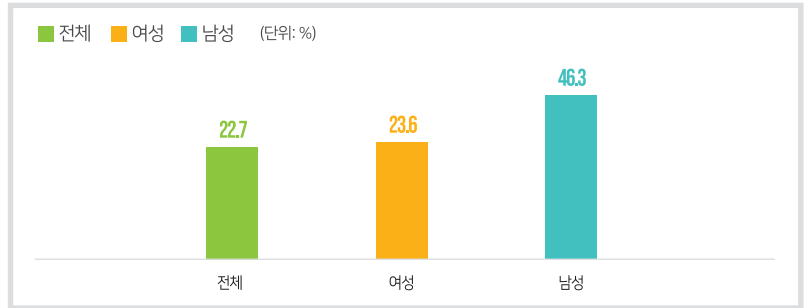
그림13 보육시설 만족도



출처) 경상남도, 「경상남도사회조사(2020년)」, KOSIS.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중 임신·출산·육아에 만족한 비율로, 2020년 기준 전체 22.7%이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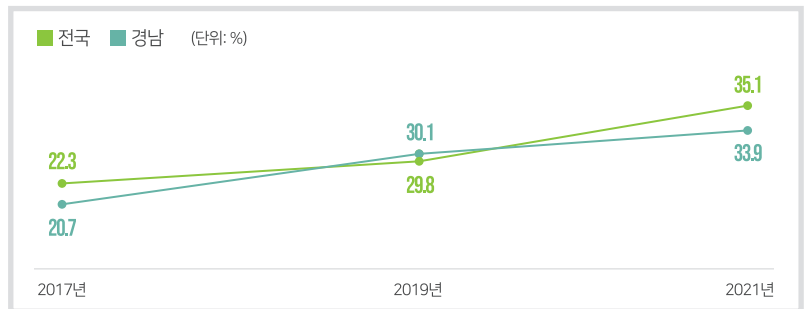
그림14 임신·출산·육아 만족도



출처) 경상남도, 「경상남도사회조사(2020년)」, KOSIS.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로, 경남은 2017년 20.7%에서 2021년 33.9%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35.1%보다는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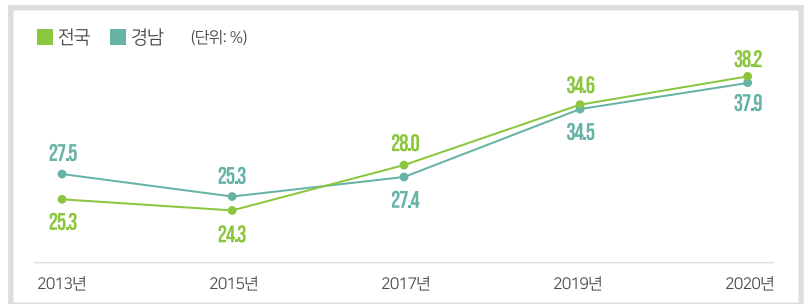
그림15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근로 여건 중 근로시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로, 경남은 2013년 27.5%에서 2021년 37.9%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 전국 평균 38.2%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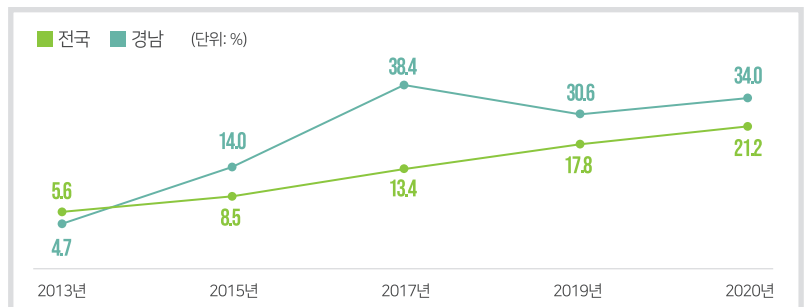
그림16 근로시간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육아휴직 참여자 중 남성 비율로, 경남은 2015년 4.7%에서 2019년 34.0%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2019년 기준 전국 평균 21.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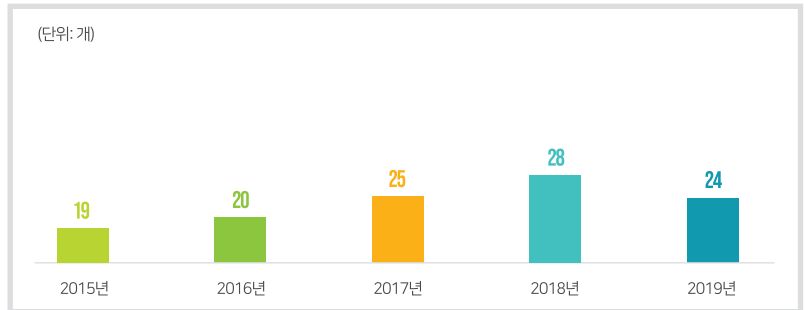
그림17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DB」.

■ 신규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경상남도의 기업·기관 수는 2015년 19개에서 2018년 28개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4개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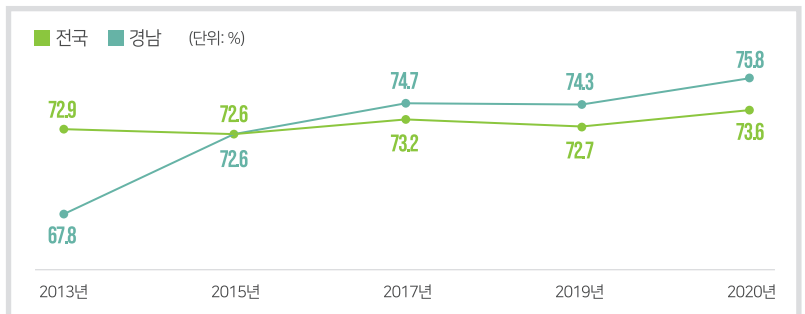
그림18 가족친화인증기업 수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노후에 대해 “준비되어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로, 경남은 2013년 67.8%에서 2021년 75.8%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73.6%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19 노후 준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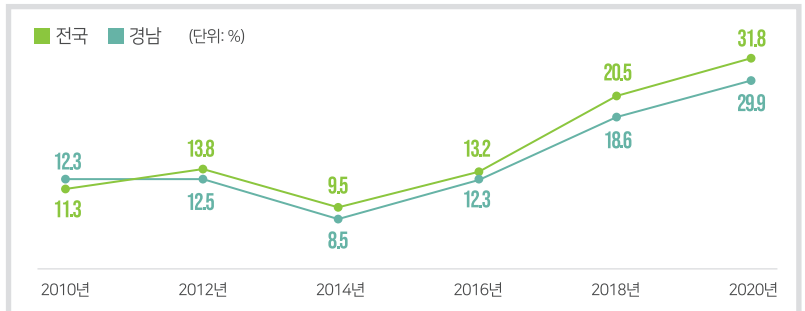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4.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 분야

■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로, 경남은 2010년 12.3%에서 2020년 29.9%로 상승하였으며,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31.8%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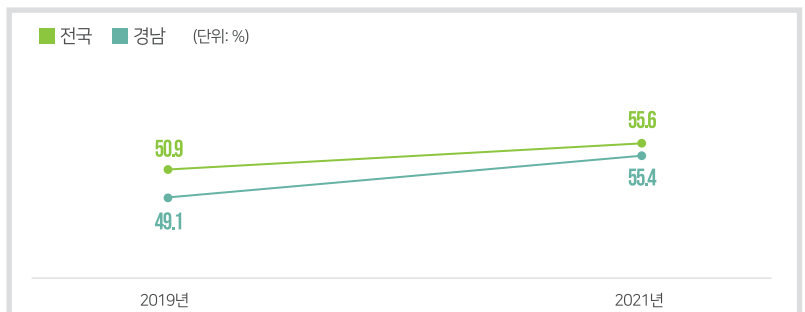
그림20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로, 경남은 2019년 49.1%에서 2021년 55.4%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 전국 평균 55.6%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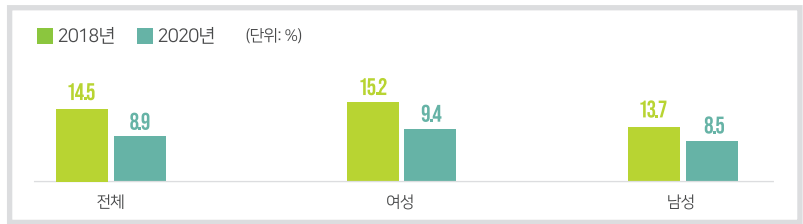
그림21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로, 2018년 14.5%에서 2020년 8.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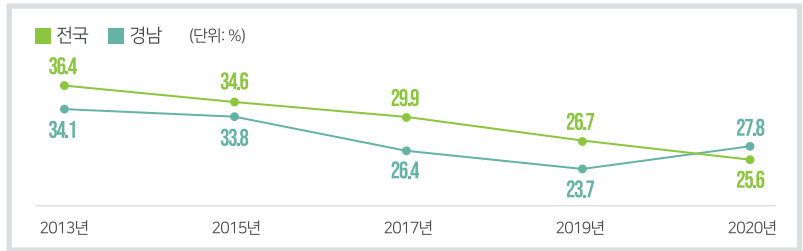
그림22 자원봉사활동 참여



출처) 경상남도, 「경상남도사회조사」, KOSIS.

현재 '기부함'이라고 응답한 비율로, 경남은 2011년 34.1%에서 2019년 27.8%로 낮아졌으나, 2019년 기준 전국 평균 25.6%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남

그림23 기부 참여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KOSIS.

04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 의의 및 활용방안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 의의

-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경남의 가족문화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 분야의 '결혼 관대화 정도', '국제결혼 관대화 정도', '동거 관대화 정도'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등의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 다양성 수용 부분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가사일 공평 분담에 대한 인식과 실태 모두 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사일을 평등하게 분담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인 관계,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 모두 전국보다 높다는 특성이 나타남
-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 분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기부 참여율' 지표는 모두 하락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 활용방안

-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는 '소통하고 존중하는 경남 가족'이라는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할 것을 제안함
 - ▶ 가족문화 변화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표를 업데이트 함
 - ▶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에 대한 보도자료 발행, 발간물 배포 등을 통해 지역사회 관심을 환기함
 - ▶ 경남형 평등 가족문화 지표 변화양상 분석을 통해 가족 관련 가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